

“최근 3년 징계받은 제주경찰 38명”

경찰, 어제 도의회서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경찰 박 시선 듣는 기회... 신뢰회복 노력할 것”

제주에서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38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규율 위반 19건(50%), 품위손상 11건(29%), 직무 태만 7건(18%) 등이며, 계급별로는 경사 17명(45%), 경위 8명(21%), 경감 6명(16%) 등의 순이었다.

올해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한 경찰의 조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책임자 3명이 감찰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7월 술에 취해 주택 앞에서 행패를 부린 제주동부서 소속 A(47)경감과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제주자치경찰단 파견 국가경찰 B(40)경위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제주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경찰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 시민사회, 법조계 등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도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금선 제주YWCA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이번에는 어떤 것 때문에 싸웠나?’, ‘이 정도 부상은 2주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사례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와 결국 신고를 주저하는



양금선 제주YWCA상담소 소장이 20일 열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도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가 촬영했다.

게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소장은 “경찰이 행동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안다. 하지만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는 사건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실 수사 논란이 촉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상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해서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모습을 도민들에

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운석 제주경찰청 현장활력회의 대표는 “역대 경찰청장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경찰조직 자체가 부패했다는 인식이 퍼질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뇌부가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가 촬영했다.

“과도한 성욕?... 이혼때 언급조차 없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변호인 입장 발표
“고유정 감형 받으려 주장”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전 남편의 과도한 성욕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반박에 나섰다.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는 이러한 성적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어 급하게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는 특성을 이용해 고씨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

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십쪽에 달하는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혔는데,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를 언급한 부분이 없었다”며 “결국 고씨는 자신을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학대 당한 여성으로 묘사해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판단에서 반드시 가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 언급하며,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송은범기자가 촬영했다.

“여교사 살해사건 양형 낮아”... 검찰 항소

1심 ‘징역 30년’ 선고

제주에서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0대에게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46)씨에 대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36분간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체장 파열’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아울러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해 갈비뼈 9개를 부러뜨리거나, 기흉에 이르게 만드는 등의 중상해를 입히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모두 김씨가 종교·사회적 멘토로 접근한 이력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를 종속시킨 뒤에는 장시간에 걸친 폭력과 재산 갈취, 노동력 착취가 이어졌고, 결국에는 A씨를 구타해 살해하는 중대하고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가 seb1119@ihalla.com

불법이동 중알선책 덜미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타 지역 이탈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가 도주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이동 중알선책 장모(38)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부부 J(49)씨와 L

(49·여)씨에게 1200만원을 받은 뒤 여객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불법이동 시켰다. 이어 4월 후에도 또 다른 중국인을 도의로 이탈시키려다 해경이 들이닥치자 도주했다.

이후 해경은 끈질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9일 오후 7시 제주시 도남동 한 주택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도 붙잡혔다. 송은범기자가 촬영했다.

화분의 굴욕... 밤 되면 쓰레기통 전략

연동주민센터, 지난 6월
누웨마루 거리에 설치

상인들 “관리 부실로
경관 해치고 악취도 발생”

제주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가 행정의 관리 부실과 시민의식 부재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밤 10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모여있는 누웨마루 거리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이곳에 새롭게 설치된 화분 110여개에는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쓰레기통을 방불케 했다.

특히 이 화분들에는 담배꽂지와 마시다 만 커피가 남아 있는 1회용 플라스틱컵(테이크아웃용), 그리고 음료수병 등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분들에서는 꽃내음이 아닌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화분에서는 심어진 나무들이 이미 죽은 상태

로 방치돼 있었다.

화분은 제주시 연동주민센터가 누웨마루거리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설치한 것이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과 함께 실종된 시민의식이 더해지면서 설치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쓰레기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곳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김모(38)씨는 “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며 두달 전쯤 설치했는데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악취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서 다니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이모(44)씨는 “이전에 다른 화분도 있었지만 상인들의 불편 민원으로 인해 치웠었는데 상인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또다시 화분을 설치했으면 행정당국이 관리라도 잘해야 할 것인데 너무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연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최근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가 촬영했다.



담배꽂이가 가득한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의 화분. 김현석기자가 촬영했다.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